

# 용인시, GTX-A 구성역 보행 안전 시설 완료

### 4번 출구 횡단보도 건설... 무단횡단 막아 연계 보행로·임시주차장 5번 출구에 조성

용인특례시가 GTX-A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지난달 27일 완료하고 역사 내 실내공기질도 법적 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민 이용 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GTX-A 구성역 개통 이후 4번 출구 가까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시민들이 종종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만들기 결정 후 최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4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단과의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시

가 직접 횡단보도·신호등·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구성역 역사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있다.

시는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에 즈음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5번 출구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임시 보행로를 개설하고 출구 인근에 8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도 마련했다. 야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이상일(왼쪽) 용인시장이 GTX-A 구성역 5번출구를 방문해 보행자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용인시

성역 5번 출구와 흥덕·수지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노선도 30일 5번 출구 개통일에 맞춰 운행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GTX-A 구성역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인 만큼 보

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공기의 질도 잘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도 들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일들

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개통된 구성역 5번 출구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위치해 기흥구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역할도 하고 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 인천 중구 '창작심터' 운영 청년작가 기획 전시 개최

인천중구문화재단이 내리마루 문화심터에서 청년작가 발굴과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획 전시 '창작심터'를 운영한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창작심터'는 12월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달 새로운 주제를 담아 회화·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총 5팀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시는 '빛과 삶'을 주제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스테인드글라스를 기반으로 인천 중구에서 활동하는 2인 작가가 그룹이 참여한다.

이들은 유리라 빛을 통해 공간을 색으로 물들이고 다채롭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관람객들은 인간의 내면과 감정, 주변 환경을 빛과 색으로 풀어낸 다양한 유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인천중구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획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어질 전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 고용둔화 업종 재직자 건강 돌봄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도 대응 프로젝트 추진, 복지 강화 박차 기업엔 공공요금 등 1社 500만 원까지 도와

경기도가 고용둔화 업종 재직자들에게 대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해 고용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경기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진돼 국비 총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억5000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 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 검진·심리 상담·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가사 등 공공요금·각종 보험료·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더욱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 인천대로 50년 만에 완전 변신... 중앙에 녹지공원 조성

### 8222억 원 투입... 상·하부 나뉘 내년 상반기 첫삽 2030년 완공

인천광역시와 인천대로 일변화 도로개발(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를 본격화 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안산단교차로부터 서인천IC까지 총 사업비 8222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인천대로의 양벽, 방음벽, 고가교 및 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총 연장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하부에는 4.53km에 달하는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



가좌IC 부근 조감도. 인천시

씨 컨소시엄이 제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지하차도 시설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장래 여건 변화 시 전자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약 449억 원의 인천시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2029년 하반기에 지하차도 임시

개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개착공법 적용과 2D·3D 해석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연속적인 특화시설 계획과 300면 규모의 친환경 주차장 도입을 통해 명품 선형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 공



용하고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됐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분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실시설계 기간(5개월) 내에 각종 행정절차와 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정복 시장은 “50년간 인천대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중방대로·봉수대로 등 우회도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 “수원 군 공항, 소음 낮추고 보상은 확대하라”

### 시민공감 포럼 150여 명 참석 공동피해 인식 해결방안 모색

수원특례시가 지난달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

30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군공항의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고도 제한 등 공동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 10점투표방안 공모정훈실장인

용흥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장병)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고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가 ‘고도제한 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비행안전구역이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태호 한국환경연구원 공공인프라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군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군 소음이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며 군 항공기 소음 문제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알렸다.

마지막으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장서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군소음보상법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변화의 시점’이라는 주제로 현 군소음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정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며 마무리했다.

포럼에 참석한 군 공항 공동피해지역 주민들이 다함께 ‘소음은 낮추고! 고도제한은 완화하고! 보상은 확대하고!’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도심 내 군 공항으로 인한 공동 피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최근 수원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지역주민 1008



수원특례시가 지난달 27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수원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원탁 토론·공론 조사 등 공론의 장 지속 마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토론회, 포럼 정기 개최 등 주민 참여 논의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74%가 참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 덕양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18개 팀 참가 성사B팀 행가래



'제23회 덕양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주교동 게이트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덕양구는 지난달 25일 '제23회 덕양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주교동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게이트볼협회 덕양구지회 주관으로 덕양구청이 후원했으며 지회 산하 10개 분회 소속 어르신 130여 명이 총 18개 팀으로 참가해 우승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으며 결승전에서 성사B팀이 햇빛B팀을 16대 12로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은 “많은 이웃과 함께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게이트볼 덕분에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덕양구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자 매년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해 축구·태니스·실버축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게이트볼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스포츠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께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운 기자 jukim@skyedaily.com